연평도 사격훈련 … 시민들 '긴장'

연평도 해상사격훈련이 시작된 20일 오후 광주시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시민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화이트 크리스마스' 예보

광주·전남·북 25일 일부 눈 … 기온 '뚝' 강추위

25일 광주와 전남·북 일부 지역은 눈이 내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과 전주기상대는 "광주·전남·북 지역은 주중에 맑거나 구름 낀 날씨를 보이다가 오는 25일 찬 대륙고기압의 확장에 따라 지형적인 영향으로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고 20일 예보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부터 25일까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강추위도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3도가 예상돼 평년보다 4~5도 가량 낮을 전망이다. 찬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내려가겠다.

한편, 23일까지 광주와 전남·북은 구름이 조금 낀 가운데 낮에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지만 새벽에는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인다.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10도~14도로 내다봤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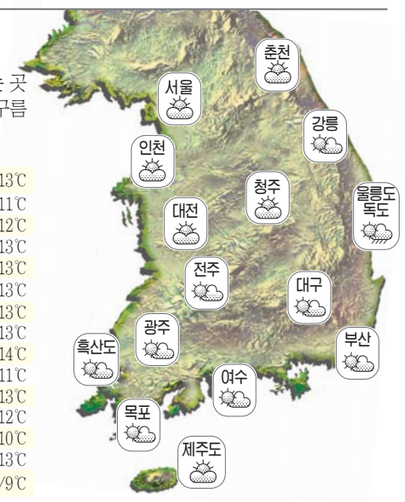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37분 / 해짐 17시 24분 — 달뜸 17시 19분 / 달짐 07시 20분

짙은 안개 주의

오전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는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광 주	구름점차많아짐	-1/13℃
목 포	구름점차많아짐	1/11℃
여 수	구름점차많아짐	5/12℃
나 주	구름점차많아짐	-4/13℃
완 도	구름점차많아짐	0/13℃
구 례	구름점차많아짐	-3/13℃
해 남	구름점차많아짐	-3/13℃
장 흥	구름점차많아짐	-3/13℃
순 천	구름점차많아짐	1/14℃
영 광	구름점차많아짐	1/11℃
진 도	구름점차많아짐	-1/13℃
전 주	구름점차많아짐	-2/12℃
군 산	구름점차많아짐	0/10℃
남 원	구름점차많아짐	-5/13℃
흑산도	구름점차많아짐	6/9℃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0.5m
먼바다	북동~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0.5m
먼바다	북동~동	0.5~1.0m

체감지수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낮음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0.5m
먼바다	북동~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먼바다	서~북서	1.0~1.5m

	밀물	썰물
목포	01:30 14:23	06:55 19:44
여수	09:08 21:08	02:30 15:12

◇주간날씨 —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2(수)	23(목)	24(금)	25(토)	26(일)	27(월)
날 씨						
최저/최고	1/12	-1/6	-6/-1	-6/1	-5/3	-2/7

2010, 그 사건 그 후 … ④ 나주 몽골여성 흉기 피살

후배 지키려다 희생 … 이주여성 보호 과제로

국제결혼 관리 강화 … 한국 적응 프로그램 개발

이주여성들도 단체 결성해 "인권보호" 한목소리

지난 9월 나주에서 한국인 남성에게 살해당한 몽골여성 고(故) 간체첵(25)씨 사건 이후 이주여성들에 대한 인권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특히 국제결혼을 통해 광주·전남지역에 정착한 1만여명의 이주여성들은 간체첵씨 사망 이후 단체를 결성하는 등 인권 개선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에 관계 당국은 결혼중개업체의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체계를 보강했으며, 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간체첵씨는 지난 9월 14일 나주시 이창동 자신의 집에서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피신한 몽골 동포여성(21)의 남편 양모(34)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양씨는 지난해 광주의 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약 1000만원을 건네고 부인과 결혼했지만, 술에 취해 자주 주먹을 휘둘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결혼 이민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사회 전방위적으로 확산됐다. 정부는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정신질환을 비롯한 당사자간 건강상태, 직업, 혼인경력, 범죄경력 여부 등의 신상정보 의무제공을 골자로 한 결혼중개업법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더불어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입국 전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현지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베트남, 필리핀, 몽골 등 3개국에서 실시했다. 지난 10월에는 베트남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제결혼이민관을 파견하는 등 국제결혼 과정에서의 국가간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이주여성들도 단체를 결성해 인권보호 주장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지난 10월 '주한몽골이주여성회'를 결성해 한국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지난달 1일에는 '전라도 몽골유학생협의회'와 '나주시 몽골여성회' 회원 등 100여명이 전남대학교에서 간체첵씨 49재 애도집회를 열고 이주여성의 인권에 대한 제도와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주여성들에 대한 가정폭력과 인권유린 문제는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현재 긴급이주여성지원센터에는 하루 평균 10여건의 상담전화가 걸려오고 있으며, 대부분 가정폭력과 사회 부적응 문제에 대한 상담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긴급이주여성지원센터 광주지부 권현희 센터장은 "이주여성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하며, 정부와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5·18 기념재단 이사장 공개모집

1월 10일까지 접수

5·18 기념재단은 20일 "5·18 기념재단 이사장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추천서 및 지원서 접수는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로, 단체추천·개인추천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응시자격은 5·18 민중항쟁과 관련해 투철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진 자로,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등 법적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임기는 2년 단임제다. 다음달 10일 서류접수를 마감한 뒤, 5·18 기념재단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임할 계획이다.

/양수현기자 yang@

대법 "여성도 종중 최고 어른 될 수 있다"

여성도 종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연고항존자(年高行尊者 ·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A종중이 "종중 소유 토지를 임의로 팔았다"며 일부 종중원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판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연합뉴스